

◦ 현장취재 4

‘천서초·혜화학교’의 아름다운 동행

장애·비장애인 하나 되어 과학 홀릭

장애이해교육은 초등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이고,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직접 만나 함께 배우며 뛰노는 수업은 그 효과가 가히 탁월하다 말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될지 모르고, 흔치 않은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교사로서도 좋은 교육환경을 만났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익산의 천서초등학교와 혜화학교는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다.

유서 깊은 통합교육

요즘은 학교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들어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천서초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은 마을과 함께 하는 어울림교육(어울림학교 2기 운영)과 기초·기본교육의 향상이다.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초·기본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사의 비율을 조정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장·교감 선생님 이하 학교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행사를 조정하던 중, 작년 통합교육 때 카드보드 키트를 만들어 즐겁게 가지고 노는 혜화학교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해서 올해는 과학의 날 행사와 통합교육 행사를 묶어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혜화학교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혜화학교 친구들은 늘 14~15명의 친구들이 참여한다. 천서초등

